

2017년 1학기 <가천인 독후감 대회> 심사평

2017학년도 제1학기 가천인 독후감대회는 달라진 독서 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필독 교양도서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추천도서를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독서의 질적 함양과 빠르게 변하는 지식의 흐름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독서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 이에 부흥하듯이 독후감 대회 참여자들이 선택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은 이번 독후감 대회를 단순한 '독서 대회'가 아니라 대회 참가자의 자발적인 '독서 경험 공감의 장'으로 만들었다.

이번 독후감 대회 선정도서는 각 분야의 필독서이기도 하면서 타 분야를 넘나들어서 시대적 고민과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심지어는 『파우스트』 같은 읽기 쉽지 않은 세계 고전까지 포함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의 도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책읽기 '축제'를 방불케 하는 독후감 대회가 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의사소통센터에서는 '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독서 체험을 넘어 사회적 존재로서의 문제의식'을 담아낸 글 또는 '독서 체험을 공감의 영역으로 깊이 있게 성찰한 내용'을 담은 글들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글의 완성도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독서를 통해 책의 핵심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감영역의 확장을 통해 창의적인 해석이 발현된 경우에도 수상의 자격을 부여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글쓰기 윤리의식의 반영을 위해, 무엇보다 철저한 표절 검사를 통해 20% 이상 표절률이 확인된 독후감은 수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작품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노력한 글을 높게 평가하였다.

총 390편 응모작 가운데 1차 심사를 통과한 50편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45편(내국인 대상-1편, 금상-2편, 은상-5편, 동상-31편/외국인 금상-1편, 은상-2편, 동상-3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심사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 1) 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독서 체험을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서술했는가?
- 2) 자신의 독서 경험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으로 확장시키고 있는가?
- 3) 글쓰기 윤리의식과 탐구 정신을 기반으로 쓴 글인가?

4) 완결성, 긴밀성, 통일성을 갖춘 글로 논리적 일관성과 표현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번 대회 대상 작인 윤승현의 「나는 존재한다, 고로 철학한다. -『우주의 끝에서 철학하기』를 읽고-」에는 경험을 바탕으로 독서 진행 과정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의식이 성장, 변화하는가를 순차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독서 체험이 확장, 심화하는 과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무엇보다 철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그 자체의 완결성을 갖춘 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소 비약적인 해석이 있었지만, 독서 체험 자체가 제 2의 자아 발견이라는 숭고한 시간임을 상기한다면 그것 또한 창의적인 표현을 위한 철학적 고민의 흔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금상 작품으로 선정된 강세중과 조하은의 글은 각각 『노르웨이의 숲』과 『미움 받을 용기』를 읽고 쓴 글로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다른 타자들이 어떻게 공동체와의 소통을 꿈꾸는지를 정확한 해석과 비판적인 의견을 견지하며 기술하고 있어 독자의 설득력을 배가하였다. 책 내용이 시대적 차이를 두고 있어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공들여 읽고 정리한 노력의 흔적이 드러나 있었다.

나머지 은상과 동상 역시 철학, 인공지능, 인종 문제, 미디어, 대중, 시민, 공동체 등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는 주제적인 해석과 안목이 돋보였다. 독서 주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독서경험을 사회적 삶(공동체)의 가치와 의미를 모색하는 과정으로 연결시키면서 공감대를 확장하는 진정성도 의미가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 금상 수상작 사라의 『남겨진 진실은 때로는 아름답다』는 뛰어난 한국어 표현력을 갖춘 글로 논리적 완결성과 작품 해석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글이었다. 외국인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한국어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여 ‘우리들’이 지향해야 하는 삶의 가치와 연결한 것, 그리고 주인공을 바라보는 자신(독서자)의 시각을 분명하게 드러낸 부분 등이 두드러졌다.

우리의 선인들은 독서란 “체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참으로 정밀히 살피고 밝게 분별(분별)하여 심신으로 체득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수레 다섯 대에 실을 분량의 책을 암송한다 한들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정조이산어록)라고도 했다. 책을 읽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익히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세대를 초월하여 가치 있는 경험의 질료들을 전달하고 있는 고전 작품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언어로 구축된 수많은 저자(타자)들의 경험을 한번쯤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체험해보려고 시도하는 이유도 독서가 단순히 ‘책 읽기’가 아니라 읽기의 ‘실천’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미래, 새로운 시간을 꿈꾸며 살아가는 이들이 자신의 경험적 질료를 확장하며
읽어가는 도전적 책읽기, 바로 의사소통센터의 독후감대회는 가천의 진정한 '독서 공
동체'가 발현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대상>

「나는 존재한다, 고로 철학한다.」
- '우주의 끝에서 철학하기'를 읽고

윤승현

지난주, 대외 활동을 하면서 다른 대학에 다니는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어색한 웃음과 함께
서로에 대해 질문하면서 그 친구가 철학을 전공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물었다.
“철학과 졸업하면 취업은 어느 쪽으로 해?, 취업은 잘 되는 편이야?”
사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괜히 물어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문계열 졸업생은 상경계열 졸업생보다 취업의 폭이 좁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철학과 인문학이 최근 재조명받고 있다. 베스트셀러 목록에서도
인문학이나 철학 서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정작 철학을 전공한 사람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말이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철학은 *앎(knowing)*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 *행함(doing)*에 관한 학문이다.”
- 우주의 끝에서 철학하기 中

철학은 무엇일까? 철학을 왜 공부할까? 철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철학은 인간의 삶 그 자체다. 철학은 인생과 세계의 근본적인 원리나 삶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철학의 원천은 바로 인간의 ‘호기심’이다. 인간은 철학을 할 수 있는, 그리
고 해야만 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릿속에는 의문과 궁금증이 떠다닌
다. ‘바나나는 왜 노랗지?’라고 의문을 품는 그 자체가 곧 철학을 하는 것이다.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근원인 동시에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인간이기에
철학을 하며 철학을 할 수 있기에 인간인 것이다.

“대부분의 훌륭한 SF 소설은 외계인, 로봇, 사이보그, 괴물 등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낯설거나
타자인 어떤 대상과의 우연한 만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타자성을 대면하는 것은
마치 우리 얼굴 바로 앞에 거울을 들이대는 것과 비슷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욱
분명히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SF 철학의 지성적인 기반이다.”
- 우주의 끝에서 철학하기 中

이 책은 SF 영화를 통해 철학 하는 책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의 삶을 냉철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인간이 아닌 제삼자의 눈을 통해 인간을 바라보는 책이다. 우리는 흔히 문학작품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간의 삶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인간이기에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사건과 갈등을 바라보게 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특정 인물에게 공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인공이 외계인이나 로봇으로 등장하는 SF 영화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외계인과 로봇이 되어 인간을 바라보는 것은 꺼림칙하면서도 불편하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호기심을 갖게 되고 이들의 시선을 탐구하고 싶어진다. 마음에 드는 예쁜 옷을 살 때 친구에게 옷이 예쁜지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려고 외계인과 로봇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프랑켄슈타인을 통해 바라보는 철학과 삶’으로 시작해 ‘블레이드 러너를 통해 탐구하는 죽음과 삶’으로 끝난다. SF 영화와 함께 떠나는 철학 여행인 셈이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 부조리하다. 일상적인 의미로, 부조리란 자신의 열망이나 생각과 현실 간의 확연한 불일치와 결부된다... 이런 부조리라는 개념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두 관점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내부로부터의 견해고, 다른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견해다.”
- 우주의 끝에서 철학하기 中

일상적으로 겪는 부조리의 극단은 꿈이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꿈꾼다. 직업, 연애, 학업, 가족 등 각 분야에서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는 현실의 부조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한다. 이런 상황을 한 개인의 내부에서 바라보면 암울하고 슬프기만 하다. 하지만 개인의 외부, 즉 세상에서 한 개인을 바라보면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다. 넓은 세상에서 그는 아주 조그만 존재일 뿐이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던 세상은 잘 굴러간다. 작가는 인간의 절망적인 부조리 상황을 극복하는 유일한 탈출구는 죽음을 통한 망각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조리함으로 둘러싸인 막다른 벽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과연 왜일까?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이상적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에게 ‘삶의 의미’란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는 무한하고 영원한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지프처럼 평생을 목적 없이 표류할 것이다. 모순적이게도 우리는 삶이 부조리한 상태일 때만 삶의 의미를 찾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어떤 날의 우리와 그다음 날의 우리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 우주의 끝에서 철학하기 中

우리는 계속해서 변한다. 시간에 극한을 무한대로 취할 수 있다면 ‘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존재할 것이다. 군에 입대할 때와 제대할 때의 ‘나’, 시속 100km의 자동차 앞에서 눈을 감고 있는 ‘나’와 눈을 뜬 상태의 ‘나’는 명백히 다른 존재이다. 그렇다면 1초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동일한 ‘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동일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많은 학자가 인격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해 영혼이론, 기억이론, 신체이론, 뇌이론을 근거로 활용했다. 각 이론은 저마다 의미가 있지만, 복제 인간에 대한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지는 못한다. 기술이 발전되어 ‘나’의 영혼, 기억, 신체, 뇌 등 모든 것을 똑같이 복제한 인간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복제의 대상이 된 ‘나’와 결과로 탄생한 ‘나’, 둘 중 무엇이 원본의 ‘나’라고 할 수 있을까? 당장은 쉽게 결정할지 모른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후 각자의 삶을 산 두 명 중 원본의 ‘나’는 과연 누구일까? 원본의 ‘나’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은 시간에 태어나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1초 전의 ‘나’와 지금의 ‘나’도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다만 지금의 ‘나’의 선택이 1초 후의 ‘나’를 결정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아널드가 후기 작품에서 묘사했던 것처럼 ‘동일성’이라는 개념은 인간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인간은 과정의 흐름 속에 존재할 뿐이다.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특정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처럼 말이다.

“<스타워즈>는 선과 악, 빛과 어둠, 특히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선과 악에 관심을 둔다. 그리고 그런 대립적인 두 힘의 복잡한 관계를 다룬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가 다 조금씩 들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둘을 깔끔하게 분리해낼 수 있을까?”

- 우주의 끝에서 철학하기 中

선과 악, 천사와 악마, 권선징악. 착함은 좋고 악함은 나쁘다. 익숙하면서 당연한 명제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다. 그렇다면 ‘선함’은 무엇인가? 방금 태어난 갓난아이에게도 우리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똑같이 적용될까?

반지의 제왕 챕터에서 다뤄진 도덕 상대주의 개념과 같이 생각해보자. 도덕적인 가치는 문화마다 다양하게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많은 할머니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누이트 부족에게는 그렇지 않다. 표면적인 도덕적 가치는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다. 하지만 살인을 하는 것을 선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핵심적인 도덕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선과 악은 핵심적인 도덕 가치에 속하는 개념이다. ‘성선설과 성악설’, ‘선의 이데아’와 같이 선과 악을 구분 지으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다.

“때론 양 떼처럼 때론 늑대처럼 / 때론 천사처럼 때론 악마처럼 /

그게 인간 절대 알 수 없지 / 가면 속의 허상 /

절대 알 수 없지 / 가면 속의 정체 / 그게 너 바로 너“

- 지킬 앤 하이드 OST 中 <Facade>

비록 허구이기는 하지만 선과 악을 구분 지으려 고군분투한 사람 중 하나는 ‘지킬 앤 하이드’의 지킬 박사일 것이다. 지킬은 존재 자체로 타인을 치유하는 선함의 대명사로, 하이드는 세상의 부조리를 제거하는 악함의 대명사로 표현된다. 지킬 박사는 선과 악을 분리하기 위해 다짐하는 선택의 순간에서 자신을 실험대상으로 선택한다. 하지만 그는 도리어 인간이 이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말했다.

뮤지컬에서는 지킬과 하이드를 다른 사람으로 구분한다. 악혼자도 그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만약 경찰이 악한 하이드를 살인 현장에서 검거하여 수갑을 채우는 도중 갑자기 선한 지킬로 변한다면 경찰은 지킬을 풀어줘야 하는가? 또한, 지킬이 악한 하이드를 잠재우기 위해 칼로 달려드는 마지막 장면은 지킬의 자살한 것인가? 아니면 지킬이 하이드를 살인한 것인가? 현실 세계에서 만취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참작하여 감형해주는 것은 타당한 판결인가? 술에 만취한 ‘나’와 평소의 ‘나’는 다른 사람인가? 이러한 질문은 끝없이 이어진다. 수학 문제를 풀 듯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도 증명할 수도 없다.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을 낳는다.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다. 철학적 논제에 자신만의 사유를 이어가는 것, 철학을 행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이 책을 접하기 전에 철학은 나에게 심오한 단어에 불과했다. 서점에서 철학책을 펴노라면 낯선 개념, 난해한 설명으로 가득해 나에게겐 어려운 숙제와 같았다. SF 영화를 사랑하는 나에게 SF 영화를 통해 철학을 하는 것은 흥미로운 접근이었다. 책에 담긴 SF 영화들은 작가가 제시하는 철학적 사유들을 시각화하고 구체화하는데 적절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읽는 것이 썩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철학적 사유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나니 철학은 일상이 되었다. 책과 영화에서 탐구한 철학적 논제들은 내 삶에 그대로 녹아 들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를 볼 때도, 비가 내리는 하늘을 볼 때도,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는 순간에도 말이다.

우리는 철학을 어려워한다. 하나 사실은 낯설 뿐이다. 철학에는 절대적인 답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철학책을 뒤져봐도 철학적 질문에 관한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기원전에 살았던 철학자들의 주장이 2천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받아들여진다.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그들보다 지능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정보가 부족해서일까? 결코, 아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찾아 결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에 사는 우리는 철학이 낯설 수밖에 없다. 철학은 답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앞서 인용했듯, 철학은 '앎'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 '행함'의 학문이다. 설령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철학이며,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철학을 해야만 한다. 나는 인생의 부조리함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1초 후에 존재할 또 다른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남이 아닌 '나'로 존재하기 위해 앞으로도 철학 할 것이다.

<금상>

상실의 세대의 생존방식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를 읽고

강세종

우선, 세계 그리고 특히 일본문학과 문화에서의 삼각관계는 우리 문학과 문화와는 다르게 꽤나 통속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서양문학과 문화에서는 삼각관계로 시작해 이각관계로 끝나는 것을 쟁취 혹은 성취처럼 비취지며, 일본문학과 문화에서의 삼각관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구도로 사용되며, 극단적이고 부정적이기 보단 긍정적 긴장을 주고, 묘하면서 극적인 효과를 불어넣어 감초역할을 하는 것이 그 예이다. 타국들의 삼각관계를 우리의 것과 비교 해봤을 때 비슷한 점이라면, 한국문학과 문화에서도 물론 삼각관계라는 구도가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이지만, 그 쓰임이 바람 혹은 간음 같은 것들에 주로 국한되고, 이러한 구도는 파국이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수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막장드라마와 같은 장르에서 말이다.

작가의 작품 속 우리와는 쓰임이 다른 이런 수법과 문화가 녹아있는 작품들이 흥행돌풍을 일으키며 하루키 붐, 효과 등이 모순적이게도 우리나라에 일어나 국가와 시대를 꿰뚫었다. 이것이 바로 작가의 동시대적 감각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이 소설도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의 숲>, 즉 한국판 <상실의 시대>는 주인공인 고교시절의 '와타나베(나, 주인공)' 와 그의 유일한 친구였던 '기즈키'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나오코' 의 삼각관계를 필두로 굴러가기 시작한다. 과거 17세였던 기즈키의 자살로 와타나베와 나오코의 본격적인 관계와 만남이 시작되고 얼마 있지 않아 같은 대학강의를 듣는 연하의 발랄한 여대생 '미도리'가 등장하여, 와타나베와 미도리와 나오코의 삼각관계가 등장하며, 또 아미료 요양원 방문을 통해 다시 와타나베와 중년의 '레이코'와 나오코 라는 삼각관계가 시작되고, 마지막엔 죽은 나오코의 옷을 입은 레이코와 하룻밤을 보내고 작별한 뒤 와타나베는 미도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세상에서 너 말고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와 만나 이야기 하고 싶다, 모든 걸 너와 둘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잠깐의 삼각관계가 생성되고 소멸한다. 작품 마짐가에 와타나베가 전화로 전하는 메시지의 애절한 호소를 통해 독자에게 벅찬 감동을 전해주며 소설은 마지막 삼각관계의 해소 속에 상황과 이야기가 종료된다.

한편, 일본의 중견 문학평론가인 '가와무라 미나토'는 " 와타나베는 여러 연애 장면에서, 마치 그것이 필연이더라도 한 것처럼 삼각의 인과관계를 만들지 않고서는 배겨내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 이 작품은 수많은 삼각형이 퍼즐처럼 짜맞추어진 소설인 셈이며, 그 삼각관계는 연인끼리의 남녀 두 사람의 관계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설에서 밝힌바가 있다. 작품에는 위에 언급된 관계들 외에도 사랑과 사람으로 이어지지 않은 수많은 삼각관계들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삼각관계로 시작해서 삼각관계로 끝나는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에 동감해 발견한 것은 수많은 두 사람들 사이에 한 사람이 중간에 위치해 만드는 삼각관계들이 이 소설의 기본이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러한 수많은 삼각의 퍼즐들 사이에서 사람과 사랑의 상실(소멸)과 개입(생성)이라는 각진 구도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기숙사 선배인 '나가사와' 와의 관계는 '위대한 개츠비' 라는 책과 인간적인 공감을 통해 이루어졌고, 미도리와의 관계는 같은 수업과 따라서, 작품 중 사적배경과 <아무것도 없어> 라는 노래에서도 잘 나타나는 결핍의 해소를 갈망하는 미도리의 굶주림을 통해 이루어졌다. 상황적으로 긴밀한 우정 없이 만난 기숙사 룸메이트 '돌격대'와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난 '이토'의 관계도 있다. 또한, 상실과는 일맥상통 하지만 기즈키의 죽음이나 나오코의 언니와 삼촌의 죽음이나, 미도리의 부모님의 병사처럼 의미와 역할은 있지만 서술과 연관이 적어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그런 구도에 끼워 맞추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건 아주 사소한, 혹은 시시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거기부터가 아니면 시작되지 않는 거지." 라는 이론을 가진 와타나베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초반부 옥상에서 하는 미도리의 말에 따르자면 언감생심일 것이다. 따라서, 그런 구도를 기본적으로 주시하지만 '상실의 세대의 생활방식'에도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보게 되었다.

유일한 친구였던 기즈키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와타나베는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속에서 나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정할 수가 없었다."에서 볼 수 있듯이 깊은 상실감을 느끼

고 방향을 하게 되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에서 보듯이 실재하고 속했던 세상과의 고립을 선언한다. “죽음은 삶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라고, 삶은 이쪽 죽음은 저쪽에 있다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던 와타나베는 결국 18세라는 어린나이에 “죽음은 삶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심각한 명제이자 사실, 즉 이율배반을 깨달음과 동시에 죽은 친구의 여자친구였던 나오코에게 조금씩 호감을 느끼게 된다. 죽은 기즈키를 공유하는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으며, 기즈키와 나오코의 관계는 죽음(상실)을 통해 실선(삶에서 이어지는 관계)에서 점선(죽음으로써 이어지는 관계)으로, 와타나베와 나오키의 관계는 점선에서 실선으로 이어져 둘만의 새로운 관계가 생성된다. 즉, 기즈키의 소멸(상실)은 와타나베와 나오코의 관계를 생성하고 발전시킨 셈이다. 그러나, 갈수록 나오키에 대한 과한 믿음과 사랑을 느끼는 와타나베는 죽음에 대한 명제를 깨달았다고 착각했지만, 이는 와타나베가 소설 끝까지 본인이 기즈키라는 존재의 점선을 부인하고 본인이 기즈키를 대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오판에서 모순점이 드러난다. 때문에 나오코의 스무살 생일 날, 와타나베와 나오코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잠자리는 “그것은 한번 왔다 가버린 것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다. 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나오코는 아미료 요양원으로 떠나고, 와타나베는 나오코의 회복을 기다리며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나오코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살을 선택한다. 이는 앞서 말했던 죽음에 관한 명제가 주는 영향이며, 이는 결국 사라지지 않는 점선이라 할 수 있겠다.

이후는 여러 선과 관계들의 어지러운 발산이다. 와타나베와 나오키 둘의 관계진행과 함께 와타나베와 ‘피가 통하는 생기 넘치는 여자’ 미도리의 관계도 진행된다. 결국 와타나베는 동시에 두 여자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나오코에게 느끼는 건 “무섭도록 조용하고, 부드럽고, 맑은 애정”, 미도리에게 느끼는 건 “겉고 호흡하고, 고동치는 애정”이라 와타나베는 고백하고 있으며, 이를 들은 레이코는 “날씨 좋은 날 아름다운 호수에 보트를 띄우면 호수도 아름답지만, 하늘도 아름답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며 ‘나’의 두 사랑을 지지하고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또한 두 개의 큰 관계가 진행되면서도 와타나베는 나가사와와 밤거리를 나서 알 수 없는 결핍에 허덕여 처음 보는 여자와 자주 잠자리도 갖는 불완전한 모습도 보여준다. 우리 정서와는 다른 이런 모습들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특히 하루키가 지지하는 신세대적 젊은이들의 ‘사랑은 사랑, 섹스는 섹스’라는 생활방식의 존재를 보여준다. 실제로, 와타나베는 처음 만난 여자들과는 관계를 가지지만, 나오코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한 번의 경험을 이후로 더 이상의 관계를 자제하고 기다린다. 미도리와는 음담패설을 나누고 포르노 영화까지도 보는 연인사이지만,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자제한다. 이를 통해 상실의 세대의 사랑방식도 알 수가 있겠다.

작가의 말마따나 이 소설은 정치적인 소설도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소설도 아니기에,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서의 시대는 와타나베에게 별다른 감회와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저 “형편없는 세상”으로 느껴진다. 이처럼 어찌면 바다를 건너온 그들의 생활방식은 몇 십 년의 시간도 건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어찌면 우리의 생활방식과 매우 닮아있을지도 모르겠다. 아직도 모든 것들이 요동치는 시대와 현실의 문제와 같등이나 투쟁 등은 불완전한 청춘들에게 울림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깊은 공감을 느끼며 시대보다는 그들 세대의 울림에 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세대에서 바다건너의 '상실의 세대'를 본다는 것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마냥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세대는 '88만원 세대', 'N포세대' 하물며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완벽해서 가히 손대지 못하는 'The Great White World'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백되어 버리는 우리의 세대를 장강명 작가는 '표백세대' 라고 칭하고 있다. 이런 배경적 이유와 더불어 작가 특유의 문장들이 합쳐져 이 소설은 우리에게 더욱 묵직하게 다가옴과 동시에 환상적으로 다가와 우리를 매료시킨다. 바로 이것이 독후감의 제목을 한국판 원제 '상실의 시대'에서의 일정 기간과 시기를 가리키는 '시대'를 빼고 기간을 가리키며 이 작품 속 주인공들이 나타내는 연령층을 부각시킬 수 있는 '세대'로 개서(改書)한 이유이다.

소설이 끝날 무렵엔 용기를 내서 8년 만에 요양원을 나온 레이코는 본인도 아직 불완전한 존재지만 와타나베에게 “와타나베도 이제 어른이니까 자신의 선택에 대해선 확실한 책임감을 가져야해.”, “미도리와 둘이서 행복해져야 해. ……., 그러니까 괴롭겠지만 강해지라고. 좀 더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야 하는 거야.” 라는 응원과 메시지를 남긴다. 둘은 나오코의 쓸쓸했던 장례식을 잊고 달래주기 위해 둘은 둘만의 장례식을 진행한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격정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며 작별한다. 레이코는 아직도 두렵지만 새로운 시작을 그리고 극복을 결심했다. 와타나베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는 독백처럼 아직 불완전하다. 확실하지 못하다.

끝으로 독후감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소설의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소설은 작품 1장에 37살의 와타나베를 등장시키고 2장부터 11장까지에 본인의 17살부터 20살까지의 회상을 시간순으로 서술해놓았다. 작가는 1장에 이미 나오코에 대한 암시를 놓아두었다. 어깨 힘을 빼고 편하게 좀 하라는 와타나베의 말에 나오코는 크게 반발하며 “어깨의 힘을 빼면 몸이 가벼워진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어. ……., 만약 내가 지금 어깨 힘을 뺀다면 나는 산산조각이 나버린단 말이야.”에서 우리는 나오코가 상실의 아픔으로 인해 회복불능의 상태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힘겨운 생존을 겨우 이어갔다는 암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우리 세대와 청춘을 투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듭해서 나오코는 본인을 잊지 말라고 부탁하는데 이는 자살을 암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이런 부탁에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만 37살의 와타나베는 계속해서 그런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낀다.

작품에는 수많은 생활양식과 청춘들이 등장한다. 모두가 가지각색이지만 결국은 상실과 재생으로 이어진다. 어느 것이 옳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 와타나베에게 마음이 더 쏠리는 이유는 아마 작품에서처럼 누군가의 죽음은 아니지만 군 복무시절 이별을 통보받고 상실감과 슬픔으로 군상담실을 수없이 왔다갔다 거렸던 기억 때문일 것이다. 또 비슷하거나 공감이가는 것은 1장의 와타나베(37세)와 마지막 11장의 와타나베(20세)를 이어볼 때, 와타나베는 상실로 인한 큰 아픔을 겪고 표류한 청춘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마음의 병을 앓고나서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았다. 어쩌면 이 작품이 말해주듯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소하게는 작은 발작일 수도 있으며, 필연적으로 상실과 재생을 반복하는 고통일 수도 있겠다. 상실은 작품 속 등장인물들과 관계들에서 볼 수 있듯이 종점이자 시점이다. 결국 한 세대가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애쓰는 몸부림은 사람과 사랑의 애절하고 처절한 '생존방식'이며 그 자체로 아름다운 슬픔인 것이다. 문학사상 자료조사

연구실에 의하면 출간 초기까지만 해도 이 책의 독자층은 주로 대학생과 직장인들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층이 더욱 다양해져 고등학생, 심지어는 중학생까지 이른다고 한다. 이유는 아마도 누군가는 곧 겪게 될, 누군가는 현재 겪고 있고, 또 누군가는 경험했던 슬픔, 상실, 상처와 아픔을 시대와 세대를 꿰뚫어 우리를 어루만져주어 깊은 위안을 전하기 때문이 아닐까.

<금상>

당신은 묶여있을 것인가, 풀고 나올 것인가.

(도서 「미움 받을 용기」를 읽고)

조하은

서점에 가면 화제의 책 코너에는 개인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 사랑의 아픔이나 현실의 힘겨움에서 허덕이는 현대인을 토닥이는 시집과 에세이가 가득하다.

확실히 현대의 청년들에게 힘든 시기이며, 나 또한 그 청년의 일부이다. 취업난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들, 세대간의 의견 차이에 얼마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기도 했다. 힘들 때엔 쉬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울고 싶을 때에는 실컷 울어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재시작은? 휴식과 수면은 마약과도 같아서, 한 번 빠져들면 헤어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쉬운 예로, 황금연휴를 겪고 난 후의 직장인이 출근을 꺼려하는 것이 있다. 듣기 좋은 말, 위로, 그리고 휴식. 분명 필요한 것들이지만 마냥 안주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 현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 생각의 끝에 <미움 받을 용기>, 이 도서를 선정하였다.

두 명의 일본인 저자는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을 현대에 걸맞게 해석하고 풀어내어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주었다. 이 도서의 구성은 조금 독특했는데, 열등감과 막막한 현실에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과 어떤 철학자의 대화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도서는 크게 다섯 장으로 나뉘어 있다. 대담하게도 저자는 과거에 의한 인과관계, 즉 트라우마부터 부정하라는 명제를 내어놓는다. 그러곤 모든 고민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됨을 말하고, 이 고민을 끊을 방법을 조언한다. 또한 이러한 시각으로 세계를 그리고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말하며, 인간이 행복해질 방법으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제시한다.

첫 번째 장에서는 원인론과 목적론이라는 두 가지 이론이 제시된다. 프로이트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이론은 원인론에 해당되며,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목적론에 해당된다. 우리는 프로이트의 심리학과 트라우마에 더 익숙하며, 행동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고는 했다. 그러나 철학자는 과거와 현재와의 인과관계에서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시킬 방법을 찾고 그 곳에 안주한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무력하여 주저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빌려와 근거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기억뿐 아니라 감정적인 행동까지도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

다. ‘타인에게 관심을 사고 싶다’ 혹은 ‘타인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소통하고 싶다’는 목적을 위해 감정적인 반응을 꺼내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상당부분 동의한다. TV, 휴대폰, SNS 등의 IT문화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남에게 보이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는가. 별 것 아닌 일에도 분노를 느끼고, SNS에 내가 겪은 상황을 증계한 일이 있었다. 당시의 나는 내 분노를 지인들이 달래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 돌이키면 또 다른 물음표가 남는다. 나는 과연 내 분노에 대한 순수한 위로를 바랐던 것인가. 아니면 분노라는 소재로 타인의 관심을 사고 싶었던 것인가. 어쩌면 후자가 당시의 내 ‘목적’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첫 번째 장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막는 근본적인 원인을 꺾다면 두 번째 장에선 모든 문제가 비롯되는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자는 논한다. 세상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상대를 ‘친구’가 아닌 ‘적’으로 정의하기 쉽고, 경쟁심리 속에서 살게 된다. 경쟁을 인식하게 되면 타인보다 우월한 나, 열등한 나를 생각하게 되고 그 곳에서 ‘열등 콤플렉스’나 ‘우월 콤플렉스’같은 것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열등감을 변명으로 삼기 시작하거나, 타인보다 우월함으로 자신을 치장해 열등감을 가리려고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한 예시는 내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왕년의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냈고,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자랑하느라 실 새 없는 이를 보면 측은함을 느끼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지난 일만을 늘어놓을 만큼 저 사람의 현재에는 그렇다할 일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철학자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타파하기 위해 세상을 적으로 돌리지 말 것, 경쟁의 구도에서 벗어나 주변인들을 ‘친구’로 인식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인생의 과제’를 직시하면 해결된다고 철학자는 이야기한다. 인생의 관계는 ‘일의 과제’, ‘교우의 과제’, ‘사랑의 과제’라는 세 가지 과제로 이루어진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의 과제이며, 인생의 과제를 회피하려고 하게 되는 변명이 ‘인생의 거짓말’인 것이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상사가 불편하게 만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거나 ‘상대가 사사건건 화나게 만들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 인생의 거짓말에 해당한다. 이는 각각, 일을 하고 싶지 않기에 상사를 이유로 드는 것과, 관계를 끝내고 싶기에 상대방에게서 구실을 찾는 것에 해당할 뿐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타파할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개인의 진정한 자유와도 연관이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가장 큰 키워드는 ‘인정욕구’와 ‘과제의 분리’라고 생각하는데, 인정욕구는 심리학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두 번은 들어보았을 법한 단어라고 생각한다.

모든 인간은 우월성을 추구하게 되고, 타인에게 인정받음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찾고자 한다는 것이 인정욕구라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욕구는 매우 위험한 욕구임을 철학자는 말한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기 때문에 타인이 없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악행을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결국 자신의 인생이 아닌 타인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점이 바로 그 이유이다. 이 인정욕구에서 벗어나고, 타인 또한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할 때 문제에서 풀려나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인정욕구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과제의 분리’인데, 이는 자신이 할 일과 타인이 할 일을 구분 짓는 것을 가리킨다. 나의 과제에 타인이 개입하는 것은 부자유를 산출하고, 또한 내가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는 것 또한 타인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철

학자는 이야기한다.

이 ‘과제의 분리’는 자기방어, 즉 타인에게 미움 받고 싶지 않아하는 마음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타인이 날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타인의 과제이다. 말을 몰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느냐는 말의 선택인 것처럼, 나에게 대한 타인의 평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그는 말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책의 제목인 ‘미움 받을 용기’를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주변인들의 요구에만 맞춰주다 보면 자유를 얻을 수 없으며, 서로 상충하는 요구가 들어올 경우 그들을 전부 만족시켜주기 위해 거짓말만 늘어놓게 될 수도 있다. 누군가 날 미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미움 받아도 괜찮다는 용기를 가질 때에서야 문제에서 풀려나며 자유를 얻게 된다. ‘타인이 바라보는 나’에서 해방이 된다면, 모든 인간관계의 ‘카드’는 내게 주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고 철학자는 이야기한다.

이 세 번째 장에서 나는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및 극중 철학자와 상당부분 의견을 같이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 맺음이 있다면 끊음 또한 있어야 한다. 끊어낼 용기가 없어 주저하고 있다간 실타래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얽히고야 만다. 끊어낼 시기에는 끊어야 한다.

개인과 타인을 구분 짓는 것은 냉혈한이어서가 아니다. 선을 넘어 들어와 서로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도록,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다. 전에 인간관계를 놓을 수 없어 손에 쥐고 힘들어하다, 정리할 관계는 정리하고 선을 그을 곳에는 그어둔 후 문제에서 해방되었던 기억이 있었기에 공감할 수 있었다.

네 번째 장에서는 타인과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논하고 있었다. 그는 ‘과제의 분리’를 인간관계의 시발점에 두고, 목표에는 ‘공동체 감각’을 두었다. 공동체 감각이란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에 대한 집착을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과제를 분리하지 못한 개인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뒤통수를 호되게 맞은 것 같은 느낌이였다. 과제를 분리하지 못한 개인은 결국 자신밖에 볼 줄 모르는 개인이라는 이야기였다. 타인이 보는 ‘나’,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는 나. 전부 개인의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였던 것이다. 타인의 시선을 인식하기 때문에 타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혀있는 상태가 그러한 상태라는 것에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되면서, 시선을 타인에게 돌리고 타인을 친구로 인식할 때 세상은 넓어진다는 생각을 더욱 확고히 정립하게 되었다.

공동체에 공헌을 하라, 그에 따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획득할 수 있다. 철학자가 그러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청년은 자신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게 소속감을 획득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던졌다. 주로 철학자의 의견에 공감했던 나또한 이때만큼은 청년과 의견을 같이했다. 공동체 감각을 목표로 해야 하며, 공헌을 해야 한다. 이는 인정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과 동시에 개인은 전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전체주의와도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학자의 답변에서 ‘아!’ 하는 탄성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행위’의 차원에서 보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며, ‘존재’의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고 철학자는 대답한다. 내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기쁨이 되며 누군가는 감사한 마음을 갖기에, 나는 소속감을 얻을 수 있으며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공감을 하면서도 한 편

오른 냉정하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는데, 어쩌면 그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존재의 가치와 인간의 행복을 위해 냉정하게도 비춰지는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다.

이제 트라우마의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났고,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였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면 좋을 방법을 살펴보았다. 또한, 자유로워진 개인이 타인과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볼지 까지 조언하였다. 남은 마지막 다섯 번째 장에서, 철학자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기서는 ‘자기수용’과 ‘타자신뢰’, ‘타자공헌’이 순환구조처럼 연결되는데,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기수용이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 짓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타인을 조건 없이 믿을 수 있는 타자신뢰의 과정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타자에의 공헌이 실천되어야 한다. 타자공헌이란, 자기희생과 동의어가 아니다. 오히려 타인을 도움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행위이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을 좋아할 수 있게 된다고 철학자는 말한다. 또한 인간 최대의 불행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는데, 이에 동의한다.

존재의 차원에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좋아하게 되는 것과, 자신을 수용하지 않은 채 우울 콤플렉스에 빠져 자신을 과대 긍정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좋아하지 않는 일, 즉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선 자신이 타인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고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없다. 자신이 이렇게 엉망인 이유만을 찾고자 방황하게 된다. 그러나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더한 우울감에 빠지기 일쑤일 것이다. 아德勒의 목적론에 따르면 개인은 이유를 찾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아닌, 이 상태에 안주하기 위해 우울감을 친구로 불러들인 것일 테니까. 일전에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한 정신과 의사의 인터뷰였는데, 무언가 일이 엉망이라고 느껴질 때는 엉망인 이유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 자신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불행, 그렇게 자존감과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한다.

자기수용 및 타자신뢰, 타자공헌을 통해 진정한 공헌감을 얻게 된다면 그 공헌감에는 자유가 있으며, 인정욕구를 통해 얻은 공헌감과 다르다. 그를 통해 인간은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 책은 마무리된다. 자유를 얻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조언하면서.

이 도서는 청년의 시기는 아픈 것이 당연하니 더 아파보아야 한다며 강요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조건 스스로를 칭찬하고 토닥여주라는 인사를 건네는 것 또한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그리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봄을 통해 자유와 행복을 얻으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화자인 철학자는 무책임하게 행복을 논하거나, 방관적인 태도로 임하지 않는다.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가며, 잘못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떠한 방향인지 가리켜주며 설명을 한다. 참 친절한 도서라는 생각을 했다.

이 도서의 근간이 되는 아德勒의 개인 심리학 이론 또한 마찬가지다. 얼핏 보기엔 과거와의 연관성을 끊어내고, 타인과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냉정한 시선이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그 이론의 끝엔 인간의 자유와 타자에의 공헌, 그리고 궁극적인 행복이 있었으며 개인을 행위적 차원이 아닌 존재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따스한 시선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책을 읽는 동안 많은 생각을 거쳤다. 상당 부분은 철학자의 이야기에 동의하였

으며, 몇몇 부분은 청년의 이야기에 공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들의 목적론과 개인 심리학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으며 청년의 뜻에 동의했던 부분들도 생각을 고치게 되었다. 과거의 실타래를 끊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도서가 좋은 도서라고 생각하기에 <미움받을 용기>는 충분히 양서라고 느꼈으며 유익한 독서시간이었다.

<외국인-금상>

남겨진 진실이 때로는 아름답다

사라

우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 를 매일 하고 있다. 우리는 매일 그곳에서 뭘 하고 있을까?

친구, 또는 살면서 전혀 만나지 않을 사람들의 삶의 한 컷을 본다. 내 삶에서 관심과 공감을 얻을 만한 것들만 선택해서 보여준다. 각자의 삶이 사진을 올리고 있지 않을 때조차 멋진 경험과 새 물건들로 채워져 있을 거라고 쉽게 상상해 버린다.

하지만 우리는 사진 너머의 진실을 알 수 없다. 멋진 여행 후 쌓인 일 때문에 침대만 빼놓고 모두 어지럽혀진 방이나, 캐리어 가방 속에서 악취를 풍기며 썩는 옷은 누구도 보여주지 않는다.

<곰팡이 꽃> 속의 주인공 남자는 “진실 그 자체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그의 눈을 통해 생생히 보는 것처럼 쓰레기를 묘사한다. 우리가 새로 산 가방이나 자동차에 대해 포스팅 할 때 정성을 들이는 것과 같다. 그는 사랑했던 여자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그 이유가 그녀의 취향을 알지 못해서라고 생각했고 그 여자와 결혼한 남자의 역겨운 모습을 자신만 알고 있어 답답해하며 술에 취해 보내지 못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다. 알리지 못했던 진실이 남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바닥에 있다고 생각한다.

남자는 자신만이 아파트 주민들의 진실을 본다는 쾌락에 빠져 수많은 쓰레기봉지를 열어보는 일에 중독된다. 그는 사회학자가 된 것처럼 쓰레기 봉지 속에서 사람들을 분류하고 사는 방식과 소비의 관계를 연결한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현대인들이 가볼로지로 조사되고 만들어진 틀 안에 머무는 것을 경고하는 것 같다. 마트에 가득 진열된 상품들은 자료들로 고객들을 파악해 광고하고 가격을 정한 것들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별한 물건과 경험을 선택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특별하게 벗어나는 사람들은 드문 이유다. 해시태그(#)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밤 남자는 맞은 편 507호 여자와 이별한 사내와 우연히 만나게 된다. 사내는 꽃다발을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남자는 사내가 알지 못하는 507호 여자의 모습들을 쓰레기를 통해 수집한다.

여자의 쓰레기 봉지에는 차표와 과일만 먹고 버린 생크림 케익, 체중관리를 한 여러 흔적들, 그리고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찾는다. 이후 사내가 다시 찾아오며 지난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 남자는 “내가 그

여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들을 몰라서 사내는 버려진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주인공의 마음이 이미 고장나있어서 틀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본다. 사랑의 가치는 알지 못해도 서로에게 끌리고 알 수 없었던 부분을 감싸주며 키우는 데 있다고 생각해서이다. 무엇을 팔 것인가?

그래서 나는 주인공이 더러운 것을 만지는 장면이 아니라 진실을 들춰내며 기뻐하는 장면을 이해하기 어렵고 역겨운지도 모르겠다.